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속도 낸다

예타 제도 개편 '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 가중치 높여
SOC 사업 탄력 ... 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 방안 마련해야

경제성 논리를 중심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번번이 탈락해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광주~전남이 정부의 예타 개편에 따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의 경제성 중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전남은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조만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개편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내총생산(GRDP), 고령인구 등의 지표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밝혀 각 지역이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타 기간 역시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사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 선정된 사업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과 수도권 사업이 각각 4개다.

비수도권 사업은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단선전철 건설사업 ▲문경~김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예산 1조7055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에 107.6km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이 타당성조사에 나섰으나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타당성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 구간(116.5km)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광주역시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국비 640억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국비 2550억원 등 3500억원) 등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의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설 동시대 교수는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그동안 광주~전남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지금까지 예타 탈락을 우려해 지역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각종 SOC 사업들도 국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와대 앞 수리·달이 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제막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진심



유키 구라모토 내한 20주년 콘서트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기념

5월24일(금)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1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내한 20주년 공연 '진심'을 오는 5월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연다.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기념 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Romance', 'Lake Louise', 'Warm Affection' 등 유키 구라모토의 대표곡들로 꾸며진다. 1986년 첫 솔로 앨범을 내며 활동을 시작한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국내 드라마·영화·광고 등에 나오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 첫 공연을 가진 뒤 꾸준히 내한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유키 구라모토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 독주와 더불어 김지운(바이올린), 이윤하(첼로), 강신일(클라리넷), 김일지(플루트)로 구성된 콰르텟과 협연을 선보입니다.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5월24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 주최·주관 : 광주일보사, 원앤원엔터테인먼트
- 티켓 :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A석 5만5000원, B석 3만3000원
- 예매 : 인터파크 ■ 문의 : 062-220-0541

光州日報社

광양제철 대기오염물질 '평평' 30년간 무단 배출하고 '아찔수 없다' ▶6면
선발 월렌드·볼펜 하준영 KIA 마운드의 새 희망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남도·나주시, 한전공대에 2000억 지원한다

운영비 연 100억씩 10년간
열악한 지자체 큰 부담될 듯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각각 100억씩 10년간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 운영비로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3일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으로 나주시와 각각 100억

원씩 대학 개교시기(2022년 3월)에 맞춰 10년간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을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한전과 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애초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제안했던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 규모와 같은 금액으로, 한전공대의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에 사용하게 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울산시와 울산군의 지원사례를 고려했다.

울산시는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500억원과 부지매입비 등 752억원을 지원하고, 울주군은 매년 50억원씩 10년간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공대의 경우 부지 40만㎡는 ㈜부영 주택에서 나주 빛가람동 부영CC 부지를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무상 제공한다.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80만㎡는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 시기 등을 나주시·한전 등과 협의 중이다. 해당 부지 비용도 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에 지

원하는 비용만 2600억원으로, 설립비용(6500억~7000억)을 제외한 연간 학교 운영비(600억원에상)로만 보면 30%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전남도는 "세계적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설립,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투자 지원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국가인재 육성에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점, 다른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측도 "설립 필요성은 공감대가 확보하지만 2000억원대의 재정부담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雪花秀
설화수

고귀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응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